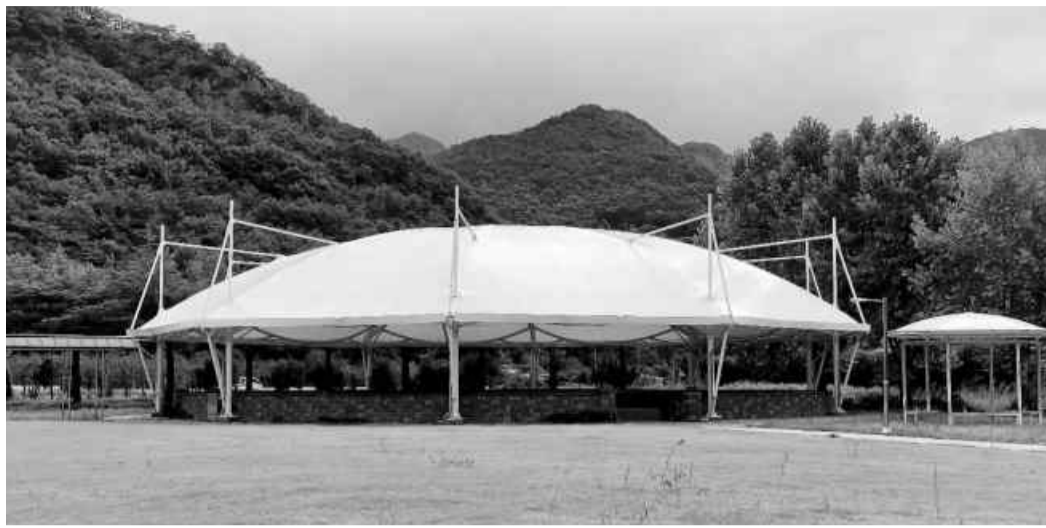


구례잔수농악연습장 애물단지 전략

2018년 4억6천여만원 들여 조성 소리울림 현상으로 3년째 이용 못해 원인 규명·개선책 마련 없이 방치



소리울림 현상으로 3년째 이용을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구례잔수농악연습장. <구례군 제공>

구례군이 막대한 예산을 들인 구례잔수농악(국가중요무형문화재 11-6호) 연습장이 소리울림 현상으로 준공 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용을 하지 못한 채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1일 구례군과 잔수농악 관계자에 따르면 2018년 4월부터 구례읍 신촌마을 옛 구례남초등학교에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18억5000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연면적 564㎡의 농악전수관과 737㎡의 농악공원을 조성했다.

이 중 4억6000여만원으로 돔 구조의 연습장을 세웠으나 구조적 결함으로 소리울림 현상 등 문제점이 발생해 준공이후 현재까지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악연습장은 구조형강관과 아연도강판, 불소 필름코팅막재를 사용한 돔형 막구조물로 연습장 내에서 악기를 연주하면 울림현상이 발생해 무슨 소리인지도 인식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준공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불만이다.

잔수농악 관계자들은 “군의 말대로라면 앞으로

도 몇 년간을 이용 못한다는 것”이라며 군의 안일한 대처에 불만을 제기했다.

이들은 처음 구례군이 사업을 시작해 놓고 문제점이 발생하자 원인규명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이젠 문화재청에 지원을 요청해 개선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않은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사업시행 당시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 추진위원으로 참여했던 주민 A씨는 “실제 때부터 연습장 구조에 대해 여러가지 문제점을 들어 이의를 제기

했지만 묵살됐고 사업 추진에서도 배제돼 의견을 말하지 못했는데 그때 좀더 강력하게 말하지 못한 게 후회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례군 관계자는 “설계나 시공상의 문제점에 대해 파악 된것은 없으며, 사업 추진과정에서 담당 부서가 바뀌는 바람에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년에 문화재청에 문화재 개선사업비를 요청해 예산이 확보된다면 2023년쯤 개선할 수 있을것이다”고 밝혔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순천형 권분운동 ‘다같이 김-치-!’ 김장 15t 나눴다

4일간 김치 나눔 릴레이 1억2000만원 기부금 모아 자원봉사자 1447명 참여



지난 30일 순천 팔마실내체육관에서 40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한 김치 담그기 행사가 열렸다.

순천시가 지난 25일부터 진행했던 김장릴레이가 30일 팔마실내체육관 자원봉사자 권역을 마지막으로 성황리에 개최됐다.

어려운 이웃에게 김장 김치를 나누고자 시작된 순천형 권분운동 ‘다같이 김-치-!’는 순천시민의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총 1억 2000만원의 기부금을 모아 총 1447명의 자원봉사자가 김장릴레이에 참여해 4일간 15t의 김치를 담갔다.

김장릴레이의 첫 시작은 지난 25일 NC순천점 야외 행사장에서 NC순천점 및 이랜드재단 임직원과 함께 추진됐다.

이날 담근 김치는 각 읍면동으로 배분되어 어려운 이웃 100명에게 전달됐다.

24개 읍면동에서도 릴레이 기간 동안 순차적으로 각 읍면동 추진 거점에서 릴레이 행사를 개최해 총 847명의 봉사자들이 10t의 김치를 직접 담가 어려운 이웃에 김치를 전달했다. 따뜻한 나눔과 봉사의 행렬은 지난 30일 팔마실내체육관에서 400여명의 자원봉사자와 함께 마무리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자원봉사자들이 총출동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3.2t의 김치

를 담갔고,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사회복지기관 28곳에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그동안 추진했던 시군별 권분운동의 에피소드를 담은 영상 송출과 부대행사를 준비해 매 시군 권분운동을 함께해 온 자원봉사자들과 감동의 시간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는 직접 김장릴레이에 참가한 자원봉사자 외에도 릴레이 기간 중 개별 추진 장소에서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했다.

(사)순천시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사랑의 밥치는 IBK기업은행과 희망철도재단에서 후원을

받아 김장릴레이에 참여해 350여 가구에 김장 김치를 전달했다.

이 밖에 새시모 봉사클럽, 국제라이온스협회, (사)대한노인회순천시지회 등도 김장 릴레이에 동참했다.

한 달 동안 추진된 순천형 권분운동 ‘다같이 김-치-!’는 나눔과 봉사로 어려운 이웃에게 온정의 손길을 전하면서 지역 생산품을 대량으로 공동 구매함으로써 지역 농가 및 관내 기업의 소득 증대를 도모해 600명 이상의 간접고용효과를 창출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전자책으로 슬기로운 독서생활 하세요”

고흥군립도서관 온택트 서비스 1인당 10일간 최대 5권까지 대출

고흥군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고흥군립도서관 홈페이지 내 전자도서관에서 ‘전자책(e-Book) 온택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군민들의 ‘슬기로운 독서생활’을 위해 마련된 ‘전자책(e-Book) 온택트 서비스’에서는 고흥군민이면 누구나 PC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1인당 10일간 최대 5권까지 대출할 수 있다.

PC는 고흥군립도서관 홈페이지 내 전자도서관에 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은 ‘교보문고 전자도서관’ 앱을 설치하고 고흥군립도서관 회원인증 후 이용할 수 있다.

고흥군립도서관(www.ghlib.go.kr)의 신간 전자책으로는 이미에 작가의 판타지 ‘달리구트 꿈백화점’, 오은영 박사의 ‘화해’, 매트 헤이그의 ‘미드나잇 라이브러리’, 허영만의 ‘백반기행’ 등 다수의 베스트셀러가 포함되어 현재 총 4178종의 전자책을 실시간으로 만나볼 수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발생으로 전자책 대출실적이 전년 대비 62%가량 증가했으며, 올해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군은 2022년에도 군립도서관 전자자료를 지속 확충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독서가 가능한 전자책(e-Book) 서비스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kwangju.co.kr



광양시 태인동에 위치한 지방기념물 제113호 ‘광양김시식지’ 전경.

세계 첫 김 양식 ‘광양김시식지’ 관광객 발길

K푸드 김 수출 늘자 주목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이 K푸드 수출 1위 품목으로 부상하면서 세계 최초로 김을 양식한 곳인 ‘광양김시식지’가 주목받고 있다.

지방기념물 제113호인 광양김시식지는 세계 최초로 김을 양식한 김여익과 그 역사를 기리기 위한 곳이다. 영모재, 김여익관, 유물전시관 등이 있으며 김의 유래, 제조과정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 곳으로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발상위에 빠지지 않는 김의 양식 역사는 광양김시식지를 찾은 관광객의 흥미를 더해주고 있다.

김여익은 병자호란에 청과 굴욕적인 화의를 맺었다는 소식이 통탄하며 광양 태인도에서 은둔하던 중 바다에 떠다니는 나무에 해초가 걸리는 것을

목격한다.

김여익은 이에 착안, 강과 바다가 만나 영양이 풍부한 광양 태인도의 이점을 살린 쫄면이 방식의 김 양식법을 최초로 장안하고 보급하면서 바다를 경작의 영역으로 확장했다.

수라상에 오른 김에 매료된 인조가 광양의 김여익이 진상했다는 말에 그의 성을 따 ‘김’이라 부르도록 했다는 이야기는 듣는 이들이 무릎을 치면서 미소 짓는 대목이다.

김이 생산되던 태인도 일대에는 광양제철소가 건설돼 금(김)과 글자가 같은 금(쇠)을 생산하고 있는데, 자동차 강판 전문제철소로 단일 공장 규모 세계 최대 조강 생산량을 자랑하며 지명의 의미를 되새겨 보게 한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보성군 제2기 청년협의체 발대 공식 활동

보성군이 지난달 3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제2기 청년협의체 발대식을 갖고 공식활동에 들어갔다.

제2기 보성군 청년협의체는 공개모집을 통해 모집됐으며,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 23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23명의 청년 위원들은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3개 분과로 2년간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날 청년협의체 위원들은 위촉장을 받고, 대표와 부대표 등 집행부를 직접 선출한 후 분과별로 향후 일정을 논의하는 등 활동에 착수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